

社 說

위례 ‘상월선원’ 개원에 부처

위례천막결사의 수행처인 ‘상월선원’이 문을 열었다. 11월 4일 위례종교용지에서 선원 법당 봉불식과 현판제막식이 봉행됐으며, 11월 11일 입재식이 열렸다. 선원 대중으로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용주사)·호산(수곡사)·무연(해인사)·심우(고불암)·진각(봉은사)·도림(정수사)·인산(송광사) 스님이 참여한다. 눈과 비, 최소한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선원에서 스님들은 치열한 수행 정진을 이어간다. 결사 동참 스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체 제정한 청규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옷 한 벌만 허용 △삭발 △목욕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각서와 제적원도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청규는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결사 동참 대중의 고불문이 말의 성찬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상월선원은 막혀있는 수행처가 아닌 열린 도량이다. 옆에는 스님들을 의호하며 자신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됐으며, 유튜브 채널도 개설돼 선원 소식들을 전할 예정이다. 변화된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속(俗)이 성(聖)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걱정한다. 이럴수록 불교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황량한 벌판에 세워진 천막법당 ‘상월선원’은 그 본령을 찾아가기 위한 베이스캠프이자 전진기지이다. 이곳에서 이뤄질 수행이 한국불교를 변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

조계종 거시지표 조사 절실

조계종의 다양한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동안거 결계 포살 법회에서 2040조계종 비전 연구설계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탈종교화에 따른 위기 의식이 있었다. ‘불교는 가장 평화적이고 미래가 밝으며, 고령화 시대에 긍정적 종교다.’ 2011년 전국 16세부터 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외부의뢰 조사 결과다. 단편적인 조사 결과를 추진 것이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조계종은 종단의 인식과 불교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 3년에 한 차례씩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고령화와 탈종교화의 가속으로 조계종의 세부 지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했지만 조계종 안팎의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 그동안 이런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불교사회연구소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최대 100여개 문항으로 결계포살법회를 기해 진행된다. 그동안 외부 업체에 민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승랍 10년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특징이다. 스님들의 여론을 통해 불교계가 종책적으로 결정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스님들이 생각하는 조계종의 방향과 일반 대중들이 함께 호흡하는 조계종의 방향은 같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사회연구소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던 여론조사 또한 실시되어야 한다. 불교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는 그동안 멈춰있던 불교계의 세부지표를 다시 한번 진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불 논란

환경저널리즘 필요하다

이화형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6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
지난해부터 등교 거부 시위 주도
기성세대에 기후 변화 대응 요구

지난 9월엔 UN 정상회의서 연설
“경제성장 신화들만 말한다” 일갈
미래 방지 어른들 향한 강력 경고

미디어, 인식 변화 · 실천에 견인차
환경 저널리즘에 기업적 투자 필요

그레타 툰베리, 16세의 스웨덴 소녀다. 세계의 주요 언론이 이 소녀의 행보를 처음 주목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1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무명의 어린 학생에 불과했던 그는 노벨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면서 환경운동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내로라하는 기성세대의 환경운동가들을 제치고 미디어의 중심에 서있다. 그녀의 시작은 2018년 8월 20일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였다. 첫 3주간은 매일, 이후에는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한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옆에 찬 그의 발걸음은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아닌 정치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했다. 말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기성세대를 향해서다. 이렇게 시작한 툰베리의 결석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s for Future)이라는 이름으로 10대 학생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국경과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등교를 거부한 채 금요일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기성세대에 실망한 툰베리 세대의 분노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그 동안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툰베리는 지난 9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의 연설을 위해 대서양을 건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거부하고 바람과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요트를 타고 14일 만에 뉴욕에 도착한 그는 세계 정상들 앞에서 이 같이 포효한다.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갔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학교다. 대멸종의 시작점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은 돈과 끝

없는 경제성장 신화만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아니든 변화는 오고 있다.” 툰베리의 행보와 외침이 이 시기 전 세계 언론에 강한 긍정의 반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그녀가 대변하는 환경 이슈의 중요성이다. 지구촌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속가능성, 재활용성, 친환경성은 시대정신과 가치를 담은 키워드가 되었다. 둘째, 미래 세대로서의 그녀의 외침이 미래를 방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강력한 항변이기 때문이다.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치중한 기성세대의 사고와 위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사고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 환경 이슈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환경보존이 중요한 만큼 언론은 환경 이슈에 대한 보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 환경보도에 있어서 미디어는 민주시민이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가서 대중에게 환경 훼손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언론이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시민의 인식 변화와 실천적 행동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인간 공동체의 안녕과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환경 저널리즘에 대한 미디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식 변화가 필요한 오늘이다.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은 때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언론은 인간의 지해를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머물 날은 얼마 안 남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은 많다’라는 툰베리의 절규를 그냥 지나친다면 언론은 더 이상 환경운동의 새 아이콘 툰베리를 보도할 자격이 없다.

수미산 순례 단상

거리마다 코스모스 꽃이 만발하고 산에는 온통 만산홍엽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이다. 지난 여름의 폭염과 태풍을 뚫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있다. 나는 이 가을에 무엇으로 결실을 이룰지 생각해 본다.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채 허송세월이나 하지 않았는지, 공밥 신세는 아닐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영진 스님과 함께하는 티베트 수미산 순례’를 80여명의 스님들과 다녀왔다. 평생의 꿈이자 소원이었던 카일라스 수미산 코라 순례길을 2박 3일간 함께하며 참으로 행복했다. 어쩌면 그 기간만이 아니라 내 전 생애가 그 날을 위한 기나 긴 여정이자 순례가 아니었나 싶었다. 이 모든 자연과 사람들의 인연과 덕화에 고맙고 감사하며 행복했노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해발 5,640m 돌마라 고개를 오를 적에 한 비구니 스님의 거룩한 발자국에 크나 큰 감동과 환희를 느꼈다. 화두를 든채 천천히 걷는 그 발자국따라

그동안 미통조차 않던 수미산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로 부처님을 다시 만나는 듯, 수미산의 진면목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스님의 발로 온 수미산을 들어 올리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일종의 경외이자 찬탄이며 또한 충격과 전율이 아닐 수 없었다. 아주 작은 웅덩이에라도 수미산이 깃들어 있고, 한송이 꽃 속에도 온 세상이 함께 한다. 보잘 것 없는 돌맹이를 조각한 마니석 하나와 바람에 휘날리는 오색의 타르초마다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신심과 원력이 있다. 그것들이 하나 둘 하늘로 올라가 전해지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저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빛나기를 기원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다 보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아무리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과 보석들일지라도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수미산 가는 길에 건러산 고갯마루(4,980m)에서 나는 우리 스님들을 보며 그걸 새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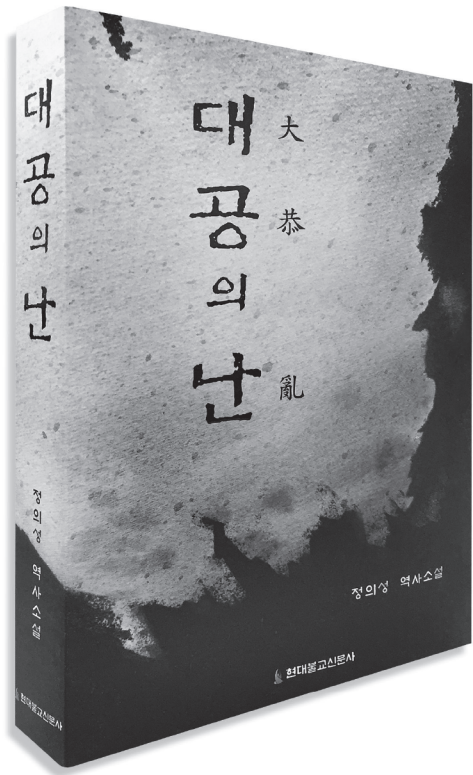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스님들의 맑고 향기로운 그 마음과, 꽃보다 아름다운 그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티베트의 영혼인 신산 카일라스와 성호 마나사로바 호수를 순례하고 돌아오니 전혀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난 듯한 마음이다. 그래서 잠시 하나 지어본다. “수천 수만의 히말라야 연봉마다/ 수천 수만의 연꽃이 피어나고/ 수천 수만의 연꽃마다/ 수천 수만의 부처일레라// 수미산정(須彌山頂)에서/ 천수천안(千手千眼)을 베풀고/ 아녹달지(阿耨達池)에서/ 천강천월(千江千月)을 나뉘이라// 수천 수만의 그 모든게/ 바로 나 하나 일레라!” 이 가을의 문턱에서 나는 어떤 무엇으로 함께할는지 생각해 본다. 안도한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처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 그럼 나는 대체 무어라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범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진 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흘렀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맛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같고 님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헌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